일본의 정권 교체와 韓日관계

이 면 우
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

일본민주당의하토야마대표가지난9월16일의중참양원에서일본의제93대총리로선출되었다. 이는8월30일의중의원 총선거에서 일본 민주당이 이룩한 308의석이라는 경이로운성과의결과로서, 308의석이라는성과는1955년에성립된자민당이 지난 54년 간 정권을거의독점하면서도 달성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로써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정권 교체는16년전인 1993년의중의원 총선거에서 당시 집권당인자민당이과반수를획득하지 못함으로써발생하긴 했지만 야당이선거에서국회내제1당을차지하여정권교체를이룬것은자민당이성립된1955년이후처음있는, 54년만의일이다.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만한 역사적 사건이 선거를 매개로 시민에 의해 일본에서 일어난 것이다. 본고에서는민주당의 대승이 어떤연유에서비롯된것인지, 과연민주당정권의성립이후일본정치가어떤방향으로흘러갈지, 그리고일본의아시아정책은어떤변화를보일지를간략히검토한다.

정권 교체 요인

민주당으로의정권 교체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에의해가능했다고할수있다.

첫째는 자민당 정치에 대한 염증이다. 자민당은1993년의 중의원 총선거에서 패배할때까지 장장 38년 간 정권을담당하면서 1950 60년대의고도경제성장과 1970년대의석유위기극복, 그리고1980년대의 경제 버블기를 뒷받침하는 정치적 안정과리더십을제공한정당이었다. 그러나이러한성공과함께금권정치와정치부패라는부작용이뒤따랐는데이러한문제들은 저성장기로 접어든 1980년대 이후, 특히 버블 경제가 붕괴된 1990년대에는거센불만을야기하게되었다.

1980년대 후반의‘ 리크루트 ’사건이나‘ 사가와규빈 ’사건 등의정치부패사건들이 1993년정권교체의도화선이되었고, 이번에는 이러한 정치 부패의 측면에 더하여 자민당 리더들의 리더십에의문이제기되면서‘ 바꿔 ’라는정치바람으로연결된측면이있다. 국민적인기를기반으로선출된아베수상과후쿠다수상이 각기1년도 가지 못해서좌초된 것에 더하여, 아소 수상의 경우에는 특히 그 부적절하고 가벼운 언동이 자민당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을 더욱 확대시킨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다. 한신문조사에따르면이번선거에서자민당지지층은37%로 2003년의 41%와 2005년의 43%에비해각각 4%와6% 감소하는데그쳤지만, 그중54%만이자민당및그후보에투표하고 29%가 민주당에 투표한 것으로 나타나 자민당에 대한 염증을 잘보여주고있다.

두번째요인은 1980년대이후시작된신자유주의적정책, 특히냉전후진행된세계화와그에대응한고이즈미수상의구조개혁 노력 등이 가져온 후유증이다. 전후 일본은 1960년대까지 고도경제성장기를 구가했지만1970년대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석유위기로인해저성장기를맞이했는데, 이러한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채를 늘리는 재정 확대 정책을 추구했다. 그러나1980년대이후에는국채증가에대한부담때문에소비세등의도입과민영화 등의구조개혁을추진했는데, 고이즈미수상의우정민영화는이러한구조개혁노력의대표적인사례라고할수있다. 이러한과정속에서자민당의전통적인지지기반이라고할수있는농민이나도시의중소기업층, 그리고이들을 대표하는 조직들이 종전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집표조직으로서의역할을할수없게만들었던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번의 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노력보다도자민당의자멸로 요약할수있다. 그러나국민이신뢰할 수 있는 자민당 이외의 정당인 민주당이 없었다면 자민당의 집권이 연장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민주당은그노력과더불어그존재자체로도중요한의미를갖는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 외에도 1990년대 이후 지속된 마이너스에가까운초저성장률과높은실업률등의경제상황은‘ 격차사회 ’나‘ 하류사회 ’와같은개념의등장에서보듯이사회적불만및불안을고조시킨것으로이번선거결과의또다른요인으로지적할수있다.

양당제 구도 확립

이번의민주당승리는또한양대정당제의확립을보여준다는

측면에서도큰의미를갖는다.

1994년에 도입된 소선거구비례대표제는 자민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대립 구도를 가져왔지만 자민당의 지속적인 수적 우위로인해양당제라고하기에는미흡한점이없지않았다. 이는 1955년이후 사회당과양대 정당 대립 구조를유지하면서도 수적 우위로 해서 장기간 집권했던 것과 유사한 것이었다고도 할수있는데, 이번의민주당승리는야당민주당의집권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줌으로써1994년 이후의구도가 그전과는 다름을 보여주었다는것이다. 즉, 민주당의승리로명실상부한양당제구도의확립이확인되었다는것이다.

물론민주당의이번승리로일본정국이양당제로안착했다고 하기에는이른감이없지않다. 내년의참의원선거결과에따라 민주당이내부갈등을겪을가능성이많고, 이에따라정계개편의 소용돌이가몰아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이는민주당이 다양한 성향을 가진 세력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이유로 민주당 간사장에 임명된 오자와 전 민주당 대표의 행보가최근주목을받고있다.

지난20년간일본정계에풍운을일으킨오자와간사장이당 내 최대세력을이끌고있기때문이다. 그럼에도집권당이지니는장점을쉽게저버릴수없고변신을위한명분이명확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적인 정계 개편은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측면도있다. 이는또한자민당의자구노력과도연관되는것으로, 경우에따라서는오히려민주당이또다른장기집권당이 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하겠다.

하토야마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민주당으로의정권교체는국내정치는물론외교분야에서도 많은변화를예고하고있다. 예를들어미일관계의경우일본의 주체성 및대등성을언급하면서재조정하겠다는의사를 보이고 있고, 이와더불어아시아 중시외교를내세우면서한국이나중국과의관계강화를제시하고있다.

한국과관련해서는야스쿠니신사참배에의불참과국민추도시설의 건립, 전후 처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사국 설치, 영주외국인의지방참정권부여, 그리고한일FTA의재추진등이주목할만한사항들이다.

한국으로서는환영할만한사항들이라고하겠는데, 문제는얼마만큼실행에옮길것인가하는 점이라고하겠다. 자민당역시 이러한 사항들에대해서언급했거나 검토했음에도 실행되지않은 것은의도적인측면이없잖아 있었겠지만, 그이상으로그에 반대하는세력의존재와같은불가피한정치여건들이작용했기 때문이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의 불참은 가장 우선적이고도 확

하토야마정부는아시아중시외교를내세우며한국 · 중국과의관계강화를모색하고 있다. 사진은지난9월 23일미국뉴욕에서첫만남을가진이명박대통령과하토야마 수상.

실한 실천 사항일 것으로 보이는데, 하토야마 수상의 親아시아 정책은이러한긍정적측면을감안하며지켜보는한국측의인내를필요로한다고하겠다.

민주당정권의대북정책은‘ 대화와압박 이라는노선중에서 ‘ 대화 를 강조할가능성이 있다. 가치 외교를 주장하던 아소 전 수상과는달리하토야마 대표는우애외교를제창하고 있고, 일북의원연맹 고문을 지낸 경력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을 이끌 오자와 간사장 역시 1990년대 초의 가네마루 방북단에 참여한 바있다. 그러나이러한변화는우선적으로미국과의관계속에서진행될것이라는점에서점진적일가능성이높다. 비록민주당정권이미일관계에있어서‘ 주체성 을주장하지만미일관계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고, 하토야마대표역시핵무기에는확실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야당으로서는반대했던‘ 화물검사법안 을집권후원안대로상정하여통과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도 이러한 이유들과 연관된 것이라고하겠다.

현재한국을둘러싼동북아및세계정세의현황은중국의급부상에서나타나듯이불확실성과기회의양측면을제공하는한편으로, 일본이한국의핵심적협력대상으로서서로공유할수 있는가치와이해를갖고있는나라임을부각시킨다.

이상에서검토한것처럼, 비록그변화의진정성및긍정성은 두고볼일이지만, 한일병합100년을1년앞둔2009년후반기에 들어서서일본이변화의 조짐을보이고있다. 이러한일본의변화가한국과함께할수있는긍정적인방향으로나아갈수있도록 한국으로서도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일본을 때로는 응원하고 인내하며, 때로는 압박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시점에와있다고하겠다.